

경복궁 복원 기공식 (景福宮 復元 起工式)

金 昌 俊
(文化財管理局建築技佐)
崔伊泰·吳析根
(文化財管理局建築技士補)

目 次

- | | |
|-----------|----------------------|
| 1. 머리말 | 5. 致 辭 |
| 2. 式 順 | 6. 報 道 資 料 |
| 3. 開基告由祭儀 | 7. 開基告由祭儀行事音樂 및 관련행사 |
| 4. 經過報告 | |

1. 머 리 말

경복궁(景福宮)은 조선(朝鮮)의 정궁(正宮)으로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정치이념(政治理念)과 문화적(文化的)·정치적(政治的) 총력량(總力量)을 동원(動員)하여 조성(造成)되었다.

조선(朝鮮) 500년 역사(歷史)를 거치는 동안 우리 민족(民族)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해 온 우리의 문화(文化)유산이다. 일제(日帝) 강점하에는 민족(民族)의 수난과 함께 경복궁(景福宮)도 많은 파괴(破壞)와 훼손을 가져와 천추전(千秋殿), 만춘전(萬春殿)('88년 복원(復元)), 수정전(修政殿), 건춘문(建春門), 영추문(迎秋門), 자경전(慈慶殿), 함화당(咸和堂), 집경당(緝敬堂), 향원정(香遠亭)등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일제(日帝)가 파괴(破壞), 변형(變形)시킨 경복궁(景福宮)을 복원(復元)하여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오늘에 재현(再現)하고 우리의 자존(自尊)을 되살리기 위하여 경복궁복원(景福宮復元)을 추진(推進)하게 되었다.

'90년에 복원(復元)을 위한 고증조사(考證調査)와 발굴작업(發掘作業)이 선행(先行)되었고 '91. 6. 5일에는 본격적인 복원공사(復元工事)를 시작함으로써 그에 따른 기공식(起工式)을 하였다.

오전 10시 30분에 근정전내정(勤政殿內廷)과 복원공사(復元工事) 현장(現場)에서 거행(舉行)한 기공식(起工式)에는 대통령(大統領)을 모신 가운데 문화계(文化係), 교육계(教育係), 예술계(藝術係)등 각계(各係) 인사(人士)들이 참석하였고, 옛궁궐 조영(造營)시 거행(舉行)했던 기공식(起工式)을 옛 모습대로 재현(再現)하였다.

2. 식 순(式 順)

- 식시작
- 개기고유제의(開基告由祭儀)
- 경과보고(經過報告)(문화부장관 이어령(文化部長官 李御寧))
- 치 사(致 辭)
- 공사추진현황보고(工事推進現況報告)(문화재관리국장 정재훈(文化財管理局長 鄭在鏞))
- 달구다짐
- 시 삼
- 식마침

* 오전 10시 30분 대통령(大統領)께서 문화부장관(文化部長官)의 수행을 받아 경복궁(景福宮) 근정문(勤政門)앞에 도착하였다.

근정문(勤政門) 입구(入口)에서 문화부기획관리실장(文化部企劃管理室長)의 영접을 받으며 식(式) 주제관(主祭官)인 헌관(獻官)(경복궁관리사무소장(景福宮管理事務所長))의 인도(引導)로 근정문(勤政門)을 지나 내정(內廷) 어도(魚道)를 걸어서 개기고유제의행사장(開基告由祭儀行事場)에 입장함으로써 식이 시작되었다.

3. 개기고유제의(開基告由祭儀)

○ 개기고유제의(開基告由祭儀)는 건물(建物)의 터를 닦고 공사(工事)를 시작(始作)하는 것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알리는 제의(祭儀)로 전통궁궐조영(傳統宮闕造營)시의 의식(儀式)으로 거행(舉行)하였다.

제의(祭儀) 흘기(笏記)는 일반 참가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어 썼다. 대신 흘기(笏記) 한자(漢字) 원문(原文)은 참가자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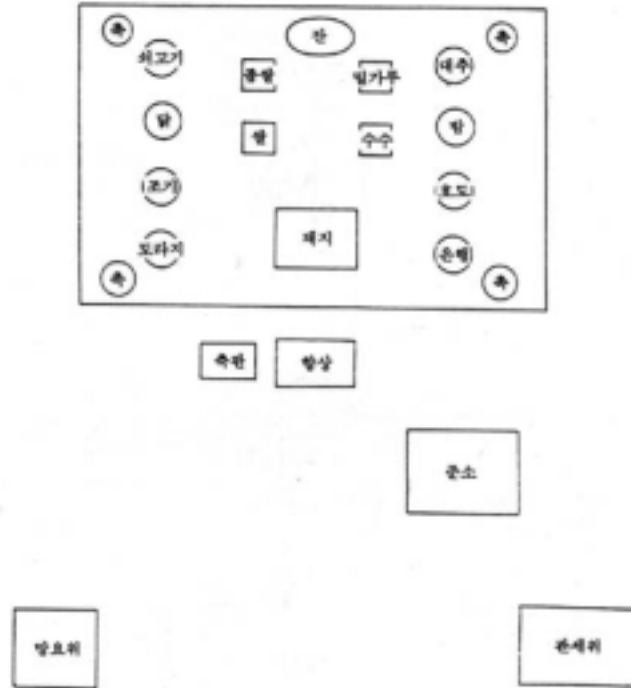
○ 개기고유제의분방(開基告由祭儀分傍)(제의행사담당관배정(祭儀行事擔當官配定))

- 헌관(獻官)(제의행사주제관(祭儀行事主祭官))은 경복궁사무소장(景福宮事務所長)이, 집예관(執禮官)(제의행사진행관(祭儀行事進行官))은 중요무형문화재56호 종묘제례집례자 이은표(重要無形文化財56號 宗廟祭禮執禮者 李殷杓)옹이 맡았으며, 그외에 집사(執事)(헌관(獻官)과 집예관(執禮官)을 도와 식(式)을 집행(執行)) 8인(人)(대축관 : 축문독문란, 감제관 : 제의행사감독관, 봉향 : 헌관(大祝官 : 祝文讀文官, 監祭官 : 祭儀行事監督官, 奉香 : 獻官)의 분향(焚香)시 향합(香盒)을 받드는 역할, 봉로 : 헌관(奉盧 : 獻官)의 분향(焚香)시 향로(香爐)를 받드는 역할, 내봉 : 헌관(內奉 : 獻官)의 헌작(獻爵)시 헌관(獻官)에게 잔을 전하는 역할, 외봉 : 헌관(外奉 : 獻官) 헌작(獻爵)시 술을 채운 잔을 내봉(內奉)에게 전하는 역할, 사존(司尊) : 술을 잔에 채우는 역할, 찬의 : 헌관(贊儀 : 獻官)을 인도하는 역할)이 있다.

- 복장은 헌관(獻官)이하 모든 제관(祭官)이 제례복(祭禮服)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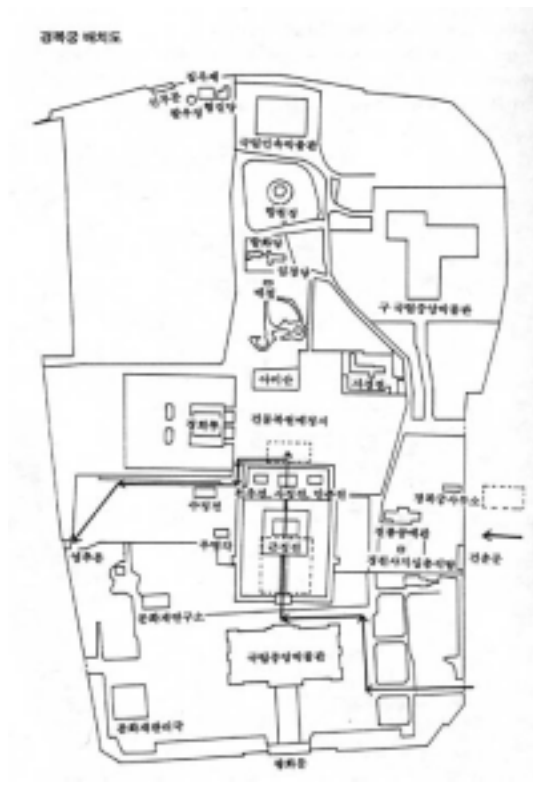
- 제수(祭需)는 국조오례의에 근거하여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진설(陳設)하였는데 쌀, 기장, 수수, 찰좁쌀, 적두병, 흑병, 폐, 밤, 추자, 은행, 예제, 양제, 청주, 돼지, 미나리김치, 대나무순김치 등이 사용되었으며 그 진설도(陳設圖)(상차림표)는 다음과 같다.

제 수 진 설 도(국조오례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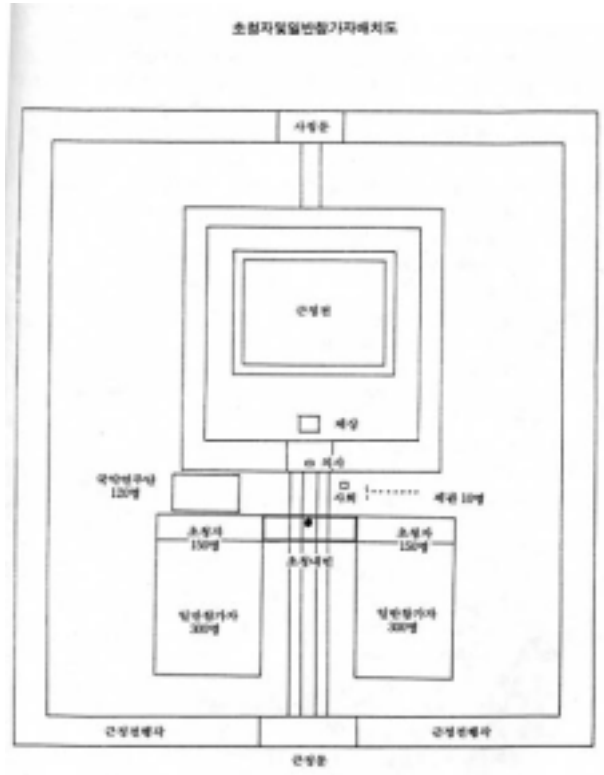


제 수 진 설 도(국조오례의 근거)

- 망요위 축문을 태우는 곳
- 축판 축문을 놓는 곳
- 향상 향을 놓는 곳
- 준소 제주를 놓는 곳
- 관세위 손을 씻는 곳



경복궁 배치도



초청자 및 일반참가자 배치도

- 제기(祭器)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례행사(傳統祭禮行事)때 쓰이는 것으로 종묘보관(宗廟保管) 우리국 소유와 일부는 전주이씨(全州李氏)대동종약원에서 대여하여 사용하였으며 품목(品目)은 다음과 같다.

축합(1), 작(2), 작판(3), 두(4), 변(4), 보(2), 궤(2), 병자(3), 폐비(1), 산창(3), 용작(1), (3), 향헌(1), 향합(1), 향(1), 와용축대(3), 전축기(1), • 세위(1), • 세기(10), 망료기(1), 망료저(1), 배석(소2,대2), 향축상(1), 제상(2), 망료상(1), • 세상(1), 준상(1), 축보(1), 황료농(2)

(祝函(1), 爵(2), 爵板(3), 豆(4), 邊(4), 보(2), 궤(2), 餅子(3), 幣비(1), 山창(3), 龍勺(1), (3), 香爐(1), 香盒(1), 香(1), 臥龍燭台(3), 剪燭器(1), • 洗位(1), • 洗器(10), 望燎器(1), 望燎箸(1), 拜席(小2,大2), 香祝床(1), 祭床(2), 望燎床(1), • 洗床(1), 樽床(1), 祝報(1), 黃燭籠(2))

○ 개기고유제의절차(開基告由祭儀節次)

- 집예(執禮)와 찬의(贊儀)는 앞드려 절을 4번하고 정해진 위치에 나아가 선다.
- 모든 집사(執事)는 절하는 위치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 앞드려 절을 4번하고 일어서시오
- 손 씻는곳에 가서 손을 씻으시오
- 각자 정해진 위치에 서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절하는 위치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시오
- 헌관(獻官)은 앞드려 절을 4번하고 일어서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을 손 씻는 곳으로 인도하여 손을 씻게 하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을 술 따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서쪽을 향해 서게한 다음 술 따르는 것을 보게 하시오.
- 집존관(執尊官)은 잔에 술을 따르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을 신위 앞으로 인도하여 꿇어앉게 하시오.
- 헌관(獻官)은 향을 세 번 올리시오
- 헌관(獻官)은 잔을 세 번 올리시오
- 헌관(獻官)은 폐를 올리시오
- 헌관(獻官)은 앞드렸다 일어나 물러서 꿇어 앉으시오
- 모든 집사(執事)는 앞드리시오
- 대축관(大祝官)은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으시오
- 헌관(獻官)은 앞드렸다 일어서시오
- 모든 집사(執事)는 일어서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절하는 위치로 내려서게 하시오
- 헌관(獻官)은 앞드려 절을 4번하고 일어서시오
- 모든 집사(執事)는 원래의 절하는 위치로 와 서시오
- 앞드려 절을 4번하고 일어서시오
- 축문(祝文)을 태우는 식을 시작하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을 축문(祝文)을 태우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 대축관(大祝官)은 축문(祝文)을 태우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을 원래의 위치로 인도하시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에게 제의(祭儀)가 끝났음을 알리시오

- 집례(執禮)와 찬의(贊儀)는 절하는 위치로 내려와 앞드려 절을 4번한다.
- 찬의(贊儀)는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나간다.

◦ 개기고유제의홀기(開基告由祭儀笏記)

△ 부창(不昌), ○ 창(昌)

△ 집례찬의선배취위(執禮贊儀先拜就位)

○ 제집사입취배위북향위(諸執事入就拜位北向位)

○ 국궁사배홍평신(鞠躬四拜興平身)

○ 예관세위세(詣盥洗位洗)

○ 각취위(各就位)

○ 찬의인헌관입취배위북향위(贊儀引獻官入就拜位北向位)

○ 헌관국궁사배홍평신(獻官鞠躬四拜興平身)

○ 찬의인헌관예관세위(贊儀引獻官詣盥洗位)

○ 찬의인헌관승동계예존서향위감작(贊儀引獻官陞東階詣尊西向位監爵)

○ 집존관작주(執尊官酌酒)

○ 찬의인헌관예신위전궤(贊儀引獻官詣身位前跪)

○ 삼상향(三上香)

○ 집작헌작연존상작(執爵獻爵連尊上爵)

○ 집폐헌폐(執幣獻幣)

○ 헌관부복홍소퇴궤(獻官俯伏與少退跪)

○ 예집사개부복(詣執事皆俯伏)

○ 대축동향궤독축(大祝東向跪讀祝)

○ 헌관부복홍평신(獻官俯伏興平身)

○ 제집사홍평신(諸執四興平身)

○ 찬의인헌관릉복위(贊儀引獻官隆復位)

○ 헌관국궁사배홍평신(獻官鞠躬四拜興平身)

○ 제집사구복배위(諸執四俱復拜位)

○ 국궁사배홍평신(鞠躬四拜興平身)

○ 망료(望燎)

○ 찬의인헌궁예망료위(贊儀引獻躬詣望燎位)

○ 대축봉축분어료소(大祝奉祝焚於燎所)

○ 찬의인헌관복위(贊儀引獻官復位)

○ 찬의고예필(贊儀告詣畢)

△ 집예찬의릉복위국궁사배(執禮贊儀隆復位鞠躬四拜)

△ 찬의인헌관급일동출(贊儀引獻官及一同出)

*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를 참고(參考)로 하였으며,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개기고유제의(開基告由祭儀)는 다음과 같다.

- 원문(原文)

前一日立標設門於役處鋪席設卓又設尊所及獻官以下拜位厥明陣饌如儀祭前一刻獻官以下具黑團領就門外位大祝尊祝版于卓上陣香盒獻還就外位謁者引大祝及諸執事入就拜位階四

拜訖盥洗陞謁者又引獻官入就拜位獻官拜謁者引獻官詣盥洗位及詣尊所執事者斟酒訖獻官詣神位前北向跪三上香執爵獻爵俯與少退跪大祝東向跪讀祝文獻官俯伏與平身謁者引獻官以下隆復位前焚祝檄卓去標時至始役

-번역문

터를 닦고 고유하는 제의

하루 전에 역사(役事)를 시작할 곳에 표(標)를 세우고 문을 만들고 자리를 깔고 탁자를 진설하고, 또 존소(尊所) 및 헌관(獻官)이하의 배위(拜位)를 설치하다. 그 날 이른 아침에 의례(儀禮)에 좇아 진찬(陣饌)하다.

제사 지내기 한 시간쯤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사람이 흑단령(黑團領)을 갖추고 문의 외위(外位)에 나가 서서 대축판(大祝版)과 존축판(尊祝版)을 탁자(卓子)위에 놓고 향합(香盒)과 향로(香爐)를 진설하고 도로 외위에 나가선다.

알자(謁者)가 대축관(大祝官)과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引導)하여 들어가 배위(拜位)에 나가 서게 한 다음, 모두 사배(四拜)를 마친 다음에 세숫대야 물에 손을 씻고 배위에 오른다.

알자가 또 헌관을 인도하여 배위에 나가 서게 하여 헌관이 사배(四拜)하면 알자가 또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고 이어서 존소(尊所)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술을 따라 교환한 다음 신위(神位)앞에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꿇어엎드려 세 번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잡아 잔을 올리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약간 뒤로 물러나 엎드린다.

대축(大祝)이 동향(東向)하여 엎드리어 축문을 읽고,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잡는다.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내려다 본디의 위치로 돌아와 모두가 사배하고 대축이 신위의 앞에 나아가 축문을 불사른 다음에 탁자를 치우고 쫓말을 거두고 나서 정한 시각이 되면 역사를 시작한다.

◦ 경북궁 개기고유제의 축문(景福宮 開基告由祭儀 祝文)

「1991년 6월 5일 좋은날에 경북궁 복원을 시작하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복원공사가 훌륭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장차 건립된 궁전들이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으로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빌면서 정성을 다해 제의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4. 경 과 보 고(經 過 報 告)

경복궁(景福宮) 복원(復元) 경과보고(經過報告)는 문화부장관(文化部長官)이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복궁(景福宮)은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정궁(正宮)으로 한양(漢陽)의 왕도가 이 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서울은 중심축이며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글이 창제된 현장이며,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조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조각 예술품이 이 궁에 있습니다.

경복궁(景福宮)은 이와 같이 민족적 기상과 문화적 정수의 구심처였습니다.

경복궁(景福宮) 창건은 1394년부터 시작되어 1395년에 완공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서울이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수도(首都)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은 1446년(年) 10월(月) 9일(一) 경복궁(景福宮) 집현전(集賢殿)에서 한글을 창제하게하여 반포하였으며 자격루(自擊漏), 측우기(測雨器)등 첨단과학기기(尖端科學機器)가 제작되어 이 궁에 설치(設置)되었던 것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불타서 270년간 폐궁이 되었다가 1865년부터 경복궁(景福宮) 중창공사(重創工事)가 추진되어 1867년에 완공(完工)되었습니다.

1917년 창덕궁(彰德宮)에 불이 나서 침전(寢殿)들이 불 타버리자 일제는 창덕궁(彰德宮) 침전(寢殿)을 복원한다는 명목(名目)으로 경복궁(景福宮)의 침전(寢殿)이 강영전(康寧殿), 교태전(交泰殿)등 아름다운 정궁(正宮) 건물(建物)을 헐어서 창덕궁(彰德宮)의 침전(寢殿)을 복구(復舊)하였습니다. 그리고 1926년 일제(日帝)는 경복궁(景福宮) 전면을 막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건물을 짓고 광화문(光化門)등 왕궁의 상징적 건물들이 헐어 내었습니다.

1989년 6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경복궁(景福宮) 복원공사(復元工事)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0년 일제(日帝)가 전국 각지에서 이전하여 절간처럼 설치하였던 탑(塔)과 부도(浮屠)등 석조물의 이전공사를 완료하고 경복궁(景福宮) 침전(寢殿)터의 발굴조사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복궁(景福宮) 복원(復元)의 설계(設計)는 발굴조사된 건물터의 고증확인(考證確認)과 경복궁(景福宮) 옛 평면도, 궁궐지, 사진자료(寫眞資料)등을 참고하여 1990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경복궁(景福宮) 복원(復元)은 1991년 6월 5일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98억 원을 투입하여 침전(寢殿)과 동궁(東宮), 빈전(殯殿), 과학기기, 한글창제 기념비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복원공사(復元工事)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하여 이 시대(時代)가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우리 건축(建築)의 정수가 되도록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로 지정된 대목장, 소목장, 단청장, 두석장 등이 참여(參與)하게 됩니다.

10년후 경복궁(景福宮)의 복원공사(復元工事)가 완료(完了)되면 서울을 상징하는 심장부로 우리 문화(文化)의 정수를 보여주는 의미깊은 문화(文化)의 현장(現場)이 될 것입니다.

1991. 6. 5. 문화부장관 이 어령」

5. 치 사(致 辭)

대통령께서 경복궁 복원 기공식을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직접 치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國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參席)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歷史)의 숨결과 우리들 선조(先祖)의 얼이 서린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유산(遺産)을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復元)하는 역사(役事)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3년후 ... 1994년이면 서울은 수도(首都) 600주년을 맞습니다.

경복궁(景福宮)은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이곳에 도읍을 정(定)한 이래(以來) 지난 600년에 걸쳐 수도(首都)서울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시대 수난(受難)의 역사(歷史)속에서 헐리고 변형된 이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정궁(正宮)이 앞으로 10년간에 걸친 공사(工事)로 그 옛날의 수려한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을 온 국민(國民)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조(先祖)들은 유교(儒敎)의 정치이념(政治理念)과 문화주의(文化主義)의 높은 이상(理想)을 담아 이 궁(宮)을 지었습니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이곳에서 민족문화(民族文化)의 황금기(黃金期)를 꽃피웠습니다. 이곳에 집현전(集賢殿)은 두어 한글을 창제(創製)하여 반포하셨고, 이 식전 바로 옆에 흙경각(欽敬閣)에는 세계에서 처음 만든 측우기(測雨器)와 물시계, 해시계, 천체관측(天體觀測) 기구(器具)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집현전(集賢殿)은 우리 겨레의 자존(自尊)과 문화적(文化的) 긍지(矜持)가 깃든 곳입니다.

그러나 경복궁(景福宮)은 이처럼 영광(榮光)스런 역사(歷史)만을 지니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400년전 임진난(壬辰亂)때 이 궁(宮)은 불길속에 휩싸여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그 당시의 국력을 기울여 중건(重建)할 때까지 270년의 오랜세월 동안 폐허(廢墟)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日帝)는 1910년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우리 역사(歷史)의 맥(脈)을 끊기위해 350여(餘)체에 이르던 경복궁(景福宮)의 전각(殿閣) 대부분을 헐어내고 옮겼습니다.

국권(國權)의 상징이던 근정전(勤政殿)을 가로막아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복궁(景福宮)을 복원하려는 것은 남에 의해 훼손된 민족사(民族史)에 대한 긍지(矜持)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다음세대에게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참된 모습을 전하여 그들의 올바른 역사의식(歷史意識)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未來)를 힘차게 열어가게 해야합니다.

여러분,

일제(日帝)가 광화문(光化門)을 허는 것을 보고 벽의식(薛儀式)선생은 의식없는 물건이요 말못하는 건물(建物)이라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하되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서러워도 아니한다. 다만 조선(朝鮮)의 하늘과 조선(朝鮮)의 땅을 같이하는 조선(朝鮮)의 백성(百姓)들이 그를 아까워하고 못잊어 할뿐 이라고 민족(民族)의 통한(痛恨)과 아픔을 토로(吐露)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슬픔과 고통을 딛고 세계(世界)속에서 당당한 나라, 한국인(韓國人)임이 자랑스러운 시대(時代)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날의 이제 진정한 민족주의(民族主義)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발전을 거듭하는 나라, 가장 훌륭한 올림픽을 치른 나라로 세계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7천만(千萬) 겨레가 한 울타리속에서 평화롭게 살 통일(統一)의 그날 진정한 민족자존(民族自尊)의 시대(時代)는 열릴 것입니다.

이 세계(世界)의 변혁(變革)이 일기전부터 추진한 북방정책(北方政策)으로 우리의 우리앞을 가로막던 냉전(冷戰)의 높은 장벽(障壁)을 허물었습니다.

소련(蘇聯)의 대통령(大統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북한(北韓)이 유엔에 가입하겠다고 그들의 경직된 태도를 바꾸고 있는 이제 통일(統一)의 날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歷史)의 진보(進步)와 나라의 발전(發展)은 문화전통(文化傳統)의 창조적(創造

的)인 계승(繼承)으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문화전통(文化傳統)은 우리겨레를 우리에게 만들고 우리겨레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원천(源泉)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 일각에는 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가 팽배하고 가치관(價值觀)의 혼돈(混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급(低級)한 상업문화(商業文化)가 퇴폐풍조(頹廢風潮)를 조장하는가 하면 소수의 젊은이들은 공산주의(共產主義) 나라에서도 버림받은 계급혁명(階級革命)의 구호를 외치며 폭력을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國務總理)가 된 스승에게 형언할 수 없는 집단(集團)행패(行悖)를 자행(恣行)하고도 부끄러움도...뉘우칠 줄도 모르는 대학생(大學生)들의 소행(所行)에 모두가 놀라워하고 분노(忿怒)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반인륜적(反人倫的) 행동(行動)이 어떻게 대학(大學)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사회의 반문화적(反文化的)인 현상은 우리 문화전통(文化傳統)의 참된 가치(價值)를 상실한채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진수(眞髓)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彷徨)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지(大地)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일(統一)의 그날을 위해서도, 이 시대(時代)의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문화(文化)의 정통성(正統性)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이 시대 문화(文化)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국민(國民)여러분.

영광된 역사(歷史)는 자존자강(自尊自強)하는 문화(文化)를 창조하는 민족(民族)이 누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원(復元)될 경복궁(景福宮)은 민족자존(民族自尊)을 온 국민(國民)의 가슴속에 내면화(內面化)시켜가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場)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歷史的)인 복원공사(復元工事)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깊은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고증(考證)으로 완벽한 시공(施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보도자료(報道資料)

보도자료(報道資料)는 기공식(起工式)에 즈음하여 소책자등을 각 언론사(言論社)에 배포하였다.

「정부(政府)는 일제(日帝)가 침략정책(侵略定策)의 일환(一環)으로 파괴(破壞)·변형(變形)시킨 경복궁(景福宮)의 기본(基本) 궁제(宮制)를 복구(復舊)하여 수도 서울의 상징적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조성(造成)하는 사업(事業)을 추진한다.

총사업비(總事業費) 298억원이 소요되는 이 복원사업(復元事業)은 1990년 4월부터 옛 건물지(建物址)에 대한 발굴조사작업(發掘調査作業)을 시작으로 19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다. 전체 사업중 우선 159억원을 투입하여 1차적으로 '93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사업내용(事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 왕(王)의 처소(處所)인 강녕전(康寧殿)과 왕비(王妃)의 처소(處所)인 교태전(交泰殿)을 비롯하여 그 침전부속건물(寢殿附屬建物)등 12동(棟)715평(坪)을 복원(復元)하여 정전(正殿)(왕이 신하들로부터 하례를 받고 중요한 국가의식을 거행하던 곳)인 근정전(勤

政殿)과 편전(便殿)(왕이 국사를 보던 곳)인 사정전(思政殿), 침전(寢殿)인 강녕전(康寧殿)·교태전(交泰殿)을 갖춘 경복궁(景福宮)의 기본궁제보존(基本宮制保存).

* 자격루(自擊漏)(표준자동시보장치의 물시계), 간의대(簡儀臺)(천체관측대), 규표(圭表)(정오에 해의 길이를 측정하는 장치)등 세종(世宗)때의 과학문화재 7기재현(科學文化財7器再現)

* 일제시(日帝時)이건(移建)된 탑(塔), 부도(浮屠)등 궁(宮)에 맞지 않는 시설물(施設物)들은 다른지역으로 이견보관(移建保管).

* 궁(宮)의 경관(景觀)에 조화(調和)되지 않는 외래수종(外來樹種)의 나무들은 이식하거나 제거하고 왕궁조원(王宮造苑)의 특성을 살려 조정정비.

이러한 복원사업(復元事業)의 일환(一環)으로 '90년에 사업비(事業費)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침전지역에 있는 나무들과 석탑(石塔), 부도(不到)들을 경외로 이설하고 옛날 건물지(建物址)의 정확한 위치와 유구(遺構)를 고증조사(考證調查)하기 위하여 발굴 조사 작업을 했다. 발굴조사(發掘調查) 결과 강녕전과 교태전의 기둥위치, 지하유구를 비롯하여 연도, 배수체계등도 거의 완벽하게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결과 얻어진 자료와 구한말에 작성된 북궐배치도(北闕配置圖), 그리고 1930년대에 촬영 기록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의 사진들을 비교 분석하고 고건축(古建築) 관계전문가의 자문(諮問)을 거쳐 복원(復元) 설계도(設計圖)를 작성(作成)했다.

'91년 올해에는 사업비(事業費) 18억 1천만원으로 강녕전(康寧殿)을 복원(復元)할 것이다. 그리고 경복궁 복원공사에는 우리 전통 건축술의 정수인 궁궐건축기법(宮闕建築技法)을 전승(傳承)한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대목장(大木匠)과 단청장(丹青匠), 소목장(小木匠)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인간문화재들이 복원공사(復元工事)의 실제 시공을 맡으므로써 궁궐 건축의 옛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할 것이다.

'93년까지 침전지역 복원공사를 완료하고 '94년부터는 빈전(殯殿)(왕과 왕비의 승하 후 그 혼령을 모신 곳)인 태원전(泰元殿)과 동궁(東宮)(왕세자가 거처하던 곳)인 자선당(資善堂)과 비현각(丕顯閣)도 복원(復元)하여 경복궁(景福宮)이 정전(正殿), 편전(便殿), 빈전(殯殿), 동궁(東宮)을 갖춘 조선정궁(朝鮮正宮)의 기본궁제(基本宮制)를 되찾게 되고 우리 문화(文化)의 우수성(優秀性)과 역사성(歷史性)을 알릴 수 있는 역사교육도장(歷史教育道場)으로 계승(繼承)될 것이다。」

7. 개기고유제의 행사음악(開基告由祭儀行事音樂) 및 관련 행사

행사음악(行事音樂)은 국립국악원악사(國立國樂院樂士) 48인(人), 시립국악관현악단(市立國樂管絃樂團) 22인, K.B.S국악관현악단(國樂管絃樂團) 30인, 한국(韓國)정악원 16인이 담당하였는데 개식음악(開式音樂)으로 연주된 만파정식지곡(萬波停息之曲)은 귀빈입장(貴賓入場)시 궁중(宮中)의 대표적인 관현악단(管絃樂團)으로 임금이 성문출입시(城門出入時), 궁중(宮中)에서 의식(儀式)이 있을 때, 군대진군시, 장군개선시등 거국적(軍隊津軍時, 將軍凱旋時等 舉國的)인 행사(行事)가 있을때마다 연주된 이 곡(曲)은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의 번영(繁榮)을 송축(頌祝)하는 음악(音樂)이다.

- 관련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19호(號) 선소리 산타령(山打令)보존회 29명과, 국립국악원 사물놀이패 4명이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다지는 놀이로, 직경 30cm정도의 소나무에 각재로 손잡이를 만든 원형달구로 3인이 1개조가 되어 5개조로

오방기 5개, 경복궁복원기 3개, 령기 2개의 소품으로 흥겨운 지경다지소리 가락에 맞추어 중의(고의)적삼(평민들이 입는 노동복)을 입는 남녀가 경복궁 복원기공을 축하하는 놀이를 하였다.

- 시삽은 대통령을 모시고 언론계(言論係), 문화계(文化係), 정치계(政治係)등 주요인사들이 사면(四面)에 우리 고유의 단청(丹青)문양을 그려넣은 높이 45cm시삽대에서 경복궁 복원 기공을 축하하는 시삽을 하였으며 시삽을 하신분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문화부장관, 문화재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박 영석, 중요문화재 대목장 신 응수, 중요문화재 단청장 이 치호, 서울특별시장, 건축가협회장 윤 도근, 독립기념관장 안 춘생,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여 석기, 시공회사대표 최 원석.



대통령 입장
대통령 입장



식장전경
식장 전경



행사음악

행사음악



헌관이하제례관입장

헌관이하제례입장



제례관신위앞인도

제례관신위앞인도



개기고유제의 모습

개기고유제의 모습



대통령 치사

대통령 치사



문화부장관 경과보고

문화부장관 경과보고



대통령 고건물 순시

대통령 고건물 순시



문화재관리국장의 공사추진현황보고

문화재관리국장의 공사추진현황보고



지경다지놀이

지경다지놀이



시 삼

시 삼